

투데이

“통매각 무리” 우리금융 매각 또 무산

지역 경제계 光銀 분리매각 공감대 확산
정치권 “지역은행으로 돌아오도록 최선”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또 다시 실패했다. 2010년 12월, 2011년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산 400조원이 넘는 거대 금융사를 한 번에 넘기려다보니 인수 주체를 찾지 못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은행 분리매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우리금융지주 예비입찰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제안서를 한 곳도 내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당초 유력한 인수후보였던 KB금융지주가 지난 25일 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외에 MBK파트너스와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투자펀드(PEF)들도 예상과 달리 입찰에 참여

하지 않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매각 실패 원인에 대해 광주·경남은행 등 계열사를 통째로 파는 ‘일괄매각’ 방식을 꼽고 있다. 자산 400조원이 넘는 거대 덩치의 금융사를 한 번에 살만한 인수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해 온 지역 상공인들은 안도하며, 우리은행-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요구했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금융 일괄매각이 또다시 실패한다면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광주은행이 지역민들의 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반드시 분리매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만 부회장은 “사실상 매각 작업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간 상태”라며 “앞으로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광주은행 분리매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민들과 공감대를 넓히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치권도 일괄매각 무산에 안도했다. 민주통합당 광주시장(위원장 장병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차례 실패를 거울삼아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은행은 반드시 분리매각해야 한다”며 “지역의 인수여력을 결집해 광주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온전히 되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강운태(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총감독으로 선임된 임권택(가운데) 감독,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런던에 설치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부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姜시장 “2019 세계수영선수권 광주 유치”

런던서 U대회 홍보...반기문 “남북단일팀 꼭 성사”

강운태 광주시장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영국 런던에서 세계 스포츠계 인사들을 상대로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와 함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구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27일 오전 9시(현지시간) 런던 로열 템스 요트클럽에서 열린 ‘팀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에 대해 조지 워싱턴 등 국내외의 스포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개관식에서 누즈만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과 면담,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UN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반기문 UN총장은 남북단일팀과 관련, 윌프리드 램케 UN 사무총장 스포츠 특별보좌관을 통해 “UN이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만큼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이어 FINA(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 등 위원 30여명을 초청, 오찬을 갖고 광주시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태환 선수의 수영 예선경기가 열린 아쿠아티움터를 방문하는 등 올림픽 주요 시설들을 벤치마킹했다. 강 시장은 “런던 올림픽 개막식과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고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며 “특히, FINA위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호적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 전략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런던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정욱기자 redplane@kwangju.co.kr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이어 FINA(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 등 위원 30여명을 초청, 오찬을 갖고 광주시의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태환 선수의 수영 예선경기가 열린 아쿠아티움터를 방문하는 등 올림픽 주요 시설들을 벤치마킹했다. 강 시장은 “런던 올림픽 개막식과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고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할 수 있었다”며 “특히, FINA위원들과 만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호적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 전략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런던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홍정욱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 軍공항 소음피해·보상기준 재정비해야”

민주당 광주시장 토론회

군용 비행장 소음 문제와 관련, 체계적인 역사조사를 통한 피해 및 보상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민주통합당 광주시장 후보로 광산구청에서 열린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에 참여한 지역 정치인,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발표한 소음 피해 현황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철 국회의원(광산 갑)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소음 피해 현황과 달리 녹색연합과 환경연대에선 측정항 소음도와 피해 정도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한구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은 군용기가 1일 10회 이상 운항할 경우 2주 이상 동일 장소에서 매일 측정해 기준을 산정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정확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52개 공항의 소음 정도를 조사해 주민 거주 불가능 지역 등을 파악해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강 연구원은 “군 공항 이전이 당장 결정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10년은 소요된다”며 “정확한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 우선

이전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혁 전국 군 소음 피해주민 네트워크 공동위원장 역시 “개별지역의 비행장 문제만 보지 말고 전국 비행장들의 위치 적합성 등을 살펴보고 판단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순 소음 수치보다는 전반적인 역사 조사를 통해 실제 주민들이 소음을 견딜 수 있는 수준과 소음 단계별로 주민 피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지역 주민 이전 및 보상비용을 산정해 각 지역의 군 공항 자체를 이전하는 비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632억 투입 자연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

광주시는 내년까지 6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개 자연마을의 하수도 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의 자연마을에서 발생한 하수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개별 정화조를 거쳐 하천이나 하수관로로 유입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마을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마을 주변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농경지와 지하수 오염을 줄일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지면 자연마을의 각 가정에서 방류된 수질(BOD 기준) 80~90ppm이 5ppm 이하로 떨어지 주민 거주 불가능 지역 등을 파악해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강 연구원은 “군 공항 이전이 당장 결정되더라도 실제 이전까지는 10년은 소요된다”며 “정확한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피해가 심각한 지역 주민 우선

전남 수산물 상반기 수출 121% 증가한 761만달러

김·전복 등 해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전남 수산물의 올 상반기 수출이 지난해보다 121% 증가한 761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29일 “김, 전복은 각각 1055만달러와 1713만달러를 수출해 지난해보다 각각 121.0%, 117.7%가 증가하는 등 전남의 대표적 수산물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521만달러로 상반기 수출액 전체 수출액의 73.2%를 차지했다. /오광록기자 kroh@

나기 BIE 의장 “여수박람회 성공”

페르디난드 나기 국제박람회기구(BIE)의장은 29일 “여수세계박람회는 성공한 박람회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 국가관 정부대표인기도 한 나기 의장은 29일 루마니아 국가의 날 행사와 관련 조직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루마니아 등 모든 참가국 전시관이 많은 관람객으로 성황을 이룬 것은 여수박람회의 성공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박람회는 해양에 대한 세계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의 지속적 이용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며 “특히 박람회와 관련해 구축된 KTX,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는 여수발전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국가의 날은 루마니아의 정체성을 전세계에 알릴 기회로 특히 한국과의 이해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루마니아 12대 교역대상국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오늘의 여수엑스포
'가루야 가루야'와 '사과가 쿵' 등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박람회장에서 펼쳐진다.
△국가의 날-비누아트(엑스포홀·오전 10시)
△가루야 가루야(천막극장·오전 10시부터)
△사과가 쿵(천막극장·오전 10시20분)
△신나는 바다 놀이터(컨퍼런스홀·오전 11시)
△액션드로잉(천막극장·오후 2시)
△국립국악관현악단-전차(천막극장·오후 7시)
△팜페스티벌-비스트, 지내(특설무대·오후 8시)
△빅오쇼(해상무대·밤 8시50분)
△어제의 관람객 수=21만9562명(29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 수=549만691명

漢字·漢文指導師資格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공인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2. 9. 7(금) 09:10~10:10), 토요일 오전반(2012. 9. 8(토) 09:10~10:10)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350,000 (예금주: 광주교대)
수료후특전: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부채현황 70,000,000원, 1년이자비용 4,600,000원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100,000,000원, 1년이자비용 6,750,000원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스윙분석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PAR3 게임모드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